

담화 연결사 '그러니까'에 관한 연구

서 성 교
(한려대학교)

Suh, Sung-Kyo. 1999. A Cognitive Pragmatic Approach to Discourse Connective Korean *kulenikka*. *Linguistics* 7-3, 379-398. In this paper, I attempt to analyze how the relevance theory governs discourse, and specifically how discourse connectives such as English *so* and Korean *kulenikka* contribute to discourse understanding. *Kulenikka* has a pragmatic function of indicating that the following utterances are its contextual implication. All the information which precedes *kulenikka* is assumed to be a synthesized background or contextual information. By using one word *kulenikka*, the speaker doesn't have to express all of the preceding information. This phenomenon makes us distinguish *kulenikka* from other discourse connectives.

We can not say the English discourse connective *so* and Korean discourse connective *kulenikka* play exactly the same role. But, at least,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so* and *kulenikka*. English *so* is distinguished from such discourse connectives as *therefore*, *thus*, and *hence* and the criteria for their distinction can be explained by the principle of relevance, that is, in terms of contextual implication, one of the contextual effects in the framework of relevance theory. Korean discourse connective *kulenikka* also can be distinguished from *kulayse*, *kelemulo*, and *kuleni*, and the principle of relevance offers a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kulenikka* from other connectives. (Hanlyo University)

1. 시작하는 말

이 논문에서는 적합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의해서 현대 한국어 담화 연결사 '그러니까'가 담화의 이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우리말에서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에 비해, 선행정보이건 후속정보이건 간에 그것이 談話空間 속에서 談話 參與者들의 共有認識 範圍에 들어가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단히 敏感한 특성을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담화상에서 그에 선행하는 모든 정보를 맥락적 배경지식으로 놓고, 후속되는 발화를 그에 대한 맥락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으로 나타내는 화용론적 기능을 담당하는 담화 연결표현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영어의 ‘so’가 ‘therefore’, ‘thus’, ‘hence’ 등과 구별되고, 그 기준이 적합성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듯이, 우리말의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되며, 그 차이점이 적합성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2. 선행 연구

한국어 담화연결사에 관한 연구는 의외로 많지 않고 그 분석 내용이 주로 문장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들도 다수 발견된다. 담화연결사 ‘그래서/그러니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신현숙(1989)를 들 수 있다.

신현숙(1989)에서는 ‘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의미자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그래서/그러니까’는 [+연속]의 의미자질을 갖는다고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 또는 추상적인 시간이나 심리작용의 연속을 인지하였을 때는 [+연속]의 의미를 지닌 ‘그래서/그러니까’를 선택하며, [거리]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그래서’와 ‘그러니까’를 구별하고 있다. 담화표지가 길면 길수록 [거리]가 느껴지고, 반면에 표지의 형식이 짧으면 짧을수록 [거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논의한다. 즉, ‘그래서’는 [-거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니까’는 [+거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 (1) a. 내일 오후에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그러니까) 오시라고 한 겁니다.
 b. 인생의 깊이처럼 느껴오는 오묘한 맛과 그윽한 향기 조용히 그 여유를 음미하노라면 나도 모르게 아늑한 시의 세계에 젖어들곤 합니다. 그래서(그러니까) 저는 립톤 홍차를 즐겨마십니다.

신현숙에 의하면 (1a)에서 화자는 좀더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형식의 길이가 짧은 ‘그래서’를 선택하였으며, (1b)에서는 시의 세계에 젖어드는 것과 홍차 마시는 것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표현한 것

이다(신현숙 1989: 444)라고 한다. 그러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회자와 초대손님의 대화를 정밀 전사한 다음 예를 보자.

- (2) a. 어, 그럼 다리만 조금씩 약간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다리에 쥐가 났어요?
 b. 한 사 분 넘게 계속 한 자세로만 움직이니까.
 c. 한쪽 다리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쪽 다리가 쥐가 나서, 나중에는요 노래 끝나고 나오시는데 정말 뼈뺀 다리로 이렇게 째뼉째뼉 나오셨어요.
 a. 안무 누가 한 거예요?
 b. 제가요.

(2c)의 대화에서 한쪽 다리만 움직였다는 대단히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한쪽 다리만 움직였다는 사건과 안 움직이는 쪽 다리에 쥐가 났다는 사건은 한쪽과 다른 한쪽이 동시 발생적이어서 전혀 거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러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신현숙의 또 다른 예를 보자.

- (3) a. 울아버지가 납치돼 가신게 나 두 살때래요 그러니까(그래서) 아버지 얼굴 생각은 안나요.
 b. 당신은 귀가 얇아서 딸이야. 그러니까(그래서) 매일 당하고만 살지.

(3a)에서는 납치된 사건과 현재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인지하여 '그러니까'를 선택하고, (3b)에서는 귀가 얇은 것과 당하는 사건이 어느 정도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인지하여, 즉 앞 뒤 사건이 간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화자가 '그러니까'를 선택했다(신현숙 1989: 445)라고 한다.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회자와 초대손님이 나눈 대화를 보자.

- (4) a. 근데, 순풍 산부인과 보면 두 분이 어우러지는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b. 예, 너무 재밌고, 일단 시트콤은 나오는 사람끼리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뭐, 녹화하면서 웃겨서 NG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젊

은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부방에서의 장면도 많잖아요,
 뭐, 그래서 NG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4)의 경우에 '저희가 젊은 부부'라는 사건과 '부부방에서의 장면이 많다'라는 사건 사이는 전혀 [거리]가 느껴지지 않으며,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직접적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그러니까'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후속되는 '부부방에서의 장면이 많다'라는 사건과 'NG가 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사건의 상황은 '그러니까'가 사용된 상황과 유사하지만 화자는 '그래서'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그래서'와 '그러니까'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은 만족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신현숙(1989)에서도 스스로 지적했듯이 (3)의 경우에 '그래서'도 쓰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한다. 즉, 화자가 [거리]를 인지하지 않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표현 할 때는 '그래서'가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상의 담화상에서 과연 언어 사용자가 그와 같은 자질을 인지하면서 발화를 할까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생긴다.

결국 [거리]라는 자질을 가지고는 '그래서/그러니까'의 변별점 특히 '그러니까'의 기능에 대한 만족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방법이 아닌 화용론적인 연구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바 그것이 바로 적합성이론이다. 다음 장에서는 적합성 이론의 모태가 되는 그라이스의 이론, 즉 이 연구에서 논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함축의미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3. 그라이스(Grice)의 함축의미

3. 1. 협동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

그라이스(Grice 1975)가 주창한 對話의 格律(maxims of conversation)과 協同의 原理(Cooperative Principle)¹⁾는 談話 解釋의 문제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통화하며 어떻게 담화를

1) 그라이스의 협동의 원리 및 대화의 격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Grice(1975), Wilson & Sperber(1988) 참조.

해석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그 基底에 介在하는 機構(mechanism)를 料明하지 않고는 무의미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라이스가 提案한 協同의 原理는 話用論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어진 談話를 여러 가지로 解釋할 수 있을 때 그 중에서 청자가 어느 하나만을 옳은 解釋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選擇하지 않게 되는 通話 과정을 지배하는 기준이나 원리는 무엇인가? 그라이스는 그 原理와 基準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가 수용한 목적 또는 방향이 요구하는 대로, 그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단계에서 당신의 대화가 공헌하도록 하라.

수량의 격률(Maxim of Quantity)

1. 당신의 대화가, 요구된 만큼 정보적인 것이 되도록 공헌하라.
2. 당신의 공헌이, 요구된 이상으로 정보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질의 격률(Maxim of Quality)

1. 당신이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2. 당신이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하지 말라.

관계의 격률(Maxim of Relation)

적합성을 따라.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

1. 표현의 애매함을 피하라.
2. 중의성을 피하라.
3. 간결하라.
4. 순서를 지켜라.

그라이스는 이러한 격률들을 제창하면서 특히 대화 함축의미(conversational implicatures)를 논의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하는' 바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舍意', '暗示', '意味'할 때 傳達되는 지식을 뜻한다. 사람들이 協同의 原理의 지배를 받고, 수량, 질, 관계, 방법의 격률을 따르는 한, 對話에의 공헌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傳達할 의도를 가졌는가를 확인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다. 談話 참여자가 어떤 격률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거나 명백히 무시하거나, 또는 단순히 따르지 않으면, 대화 함축意味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격률을 무시하는 경우에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 그라이스가 내린 結論은, 대화 참가자들은 그런 談話에

결속성, 정보성, 적합성, 협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나지 않은 속뜻을 추론함으로써 그 담화의 결속성, 정보성, 적합성, 협동성을 청자 스스로 達成시킨다는 것이다.

그라이스가 제창한 協同의 原理 및 대화의 격률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고, 불확정적이며, 중의적인 인간의 발화가 어떻게 완전하고 비중의적인 사고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청자는 발화된 그 문장에 의해서 표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내용들 중에서, 화자가 협동의 원리와 격률을 지키고 있다는 상정과 矛盾되는 사고내용들을 전부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결국 效率的인 通話를 수행하기 위해서 화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협동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을 지키고 있다는 상정과 부합되는 오직 하나의 解釋만을 지니는 문장을 발화하는 일인 것이다.

3. 2 함축의미

언어적 통화에 대한 그라이스의 접근방식을 사용하면 발화가 어떻게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사고내용까지도 전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대화 (5)를 살펴보자.

(5) 철수: 커피를 좀 마시겠어?

민수: 커피를 마시면 난 잠이 안와.

철수가 (6)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민수의 대답이 명시적으로 표현한 상정체에다 (6)의 상정내용을 합쳐서 결론 (7)을 추론할 수 있게 된다.

(6) 민수는 깨어 있고 싶어하지 않는다.

(7) 민수는 커피를 원하지 않는다.

그라이스는 협동의 원리와 격률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공급되는 (6)과 (7) 같은 상정내용과 결론을 함축의미(implicatures)²⁾라고 부른다.

2) 한 발화의 명시적 내용과 그 함축의미들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명시적 내용은 기호해득 되는 반면에 함축의미들은 추론되는 것이다. 명시 의미 및 함축의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Sperber and Wilson (1986: 176-202), Blakemore (1992: 57-178) 참조.

그라이스식 話用論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含蓄意味, 특히 대화 함축 의미는 주로 관계의 격률을 위반함으로써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含蓄意味는 겉으로 적합한 듯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적합한 것이라고 상정됨으로써만 옳게 복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린 (Green 1989: 87)이 제시한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 (8) a. 알린: 음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 가필드?
 b. 가필드: 닭에게 입술이 있니?
 c. 알린: 아니.
 d. 가필드: 맞았어.

숫고양이 가필드는 유명한 만화 주인공이다. 그는 먹을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여자 친구인 알린이 음식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고 가필드에게 물었을 때 가필드는 (8b), 즉 겉보기에 이 狀況에 적합하지 않은 하나의 의문문으로 알린의 질문에 대답한다. 그린(Green 1989: 87)은, “그의 질문[즉 (8b)]은 참인 대답이 명백히 ‘아니오’다. 알린은 이 점을 깨닫고, 그녀가 가필드에게 한 질문에 대해서 참인 대답도 그와 같이 ‘아니오’라는 점에 가필드의 대답 [즉 (8b)]의 적합성이 있다고 (가필드가 의도한 대로) 추론한다. 따라서 가필드의 질문은 비단 ‘아니오’ 뿐만 아니라, ‘네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이라는 내용까지도 함축하는 것이다”라고 논의한다.

그러나 그라이스의 격률들이 통화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 격률의 내용으로 사용된 概念들이 우선 보다 더 嚴格하게 規定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그라이스가 주창한 원리 및 격률만 가지고 통화를 적절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담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청자가 대상 담화 자료에 대해 세울 수 있는 假說이 많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한 가설만을 선택한 이유는 이 격률로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餘他的 假說들을 選擇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령 관계의 격률로 사용한 “適合”의 개념은 그 자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直觀에 의존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결국 이 많은 격률을 가지고 통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簡潔하면서도 說明力을 갖춘 談話 解釋의 原理를 기대하게 되는 바, 그것이 바로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86)의 適合性 原理다.

4. 적합성의 원리

4. 1 적합성의 개념

適合性(relevance)은 話用論에서 발전된 개념이지만, 다분히 認知論的인 바탕 위에서 규정되는 개념이다. 人間의 認知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히 알 수 없지만, 그 構成要素들이 인지과정상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最適의 位置에 分布되어 나름대로의 經濟性 原理에 입각해서 작동하리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험적으로 말한다면, 인간은 대상세계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정보처리상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는 자신의 인지환경상의 효과가 最適의 均衡을 이루는 방향으로 인지과정을 수행한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이 적합성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適合性(상대적 개념)

1. 여타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주어진 정보의 처리를 통해 달성된 인지효과가 클수록, 그 정보를 처리한 개인에게 그 정보의 적합성은 크다.
2. 여타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주어진 정보의 처리에 들인 노력이 클수록, 그 정보를 처리한 개인에게 그 정보의 적합성은 적다.

(Sperber and Wilson 1988: 140)

적합성은 處理 努力과 脈絡 效果의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概念이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화자는 일련의 상정내용 {I}를 意思疏通 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청자의 관심은, 화자가 사용할 수 있었던 정보 중에서 {I}가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관심사가 一致할 필요는 없다. 화자에게는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情報를 의사소통 하고자 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장 적합성이 높은 정보를 자신만 간직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자의 注意를 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화자는 상정내용 {I}가, 청자가 처리할만한 價値가 있는 자극³⁾을 생산할 만큼의 충분한 적합성을 지니는 정보라는 점을 의사

3) {I}를 추론해낼 수 있는 자극을 뜻한다.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努力的 측면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提報的 의도를 상호 현시할 수 있는 일련의 서로 다른 자극들 중에서 하나를 選擇해야 한다. 이 경우에 청자의 관심은 화자가 그 자극들 중 가장 적합성이 높은 자극, 즉 자신으로서 최소의 노력만을 요구하는 자극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심이 一致한다. 화자의 관심은 자신의 의도가 理解되는 데 있으므로, 청자가 가능한 한 자신의 意圖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다. 자신이 故意的이고 불필요하게 모호한 자극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면 청자는 진실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자극의 처리에 요구되는 處理費用을 消費하기를 거부할 것이다.

4. 2 적합성의 원리

정보처리 수단과 능력이 限定되어 있는 인간으로서는, 最善의 方式으로 표상되고, 가능한 맥락들 가운데 最善의 脈絡 안에서 처리되며, 사용 가능한 정보처리의 노력에 대해서 가장 큰 脈絡 效果(contextual effects)를 달성하는 현상에 注意의 焦點을 맞추게 되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맥락 효과(또는 인지효과)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 저장소 내에서 新情報(new information)과 舊情報(old information) 간의 相互作用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다. 만일 신정보가 구정보를 단순히 複製한 것이거나 그와 전혀 關聯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結果로 아무런 맥락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신정보가 인지환경에 참가되어 구정보를 뒷받침하는 證據(evidence)의 역할을 하거나 이에 矛盾되는 증거로 작용할 경우, 그 신정보는 強度는 다르지만 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인지환경에 맥락 효과를 일으켰다고 한다. 담화를 생산하건 아니면 수용하건 간에 일단 노력을 들이는 작업에 관여할 때 인간은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한, 최대의 맥락 효과를 얻고자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지를 작동시키는 핵심 개념 및 목표는 適合性的의 極大化(maximization of relevance)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상에서 인간은 適合性을 保證받는가? 스피커와 리스너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맥락 효과 關係에서 화자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의도하는 명제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 청자가 회수할 수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처리될 때, 청자의 주의를 끌 가치가 있는 충분한 맥락 효과를 낼 것을 보증한다. 정보 처리의 노력 면에서도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청자가 가능한 한

용이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청자가 정당화될 수 없는 노력을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화자는 자신의 의도가 청자로 하여금 이해되게끔 하기 위해 통화하는 것인데, 청자의 노력이 정당화될 수 없는 방향으로 증가할 경우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정보처리의 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담화의 전반적인 적합성이 떨어짐으로써 통화 자체가 수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인간이 생산하는 발화⁴⁾가 한편으로는 담화 참여자들에게 타당한 일련의 맥락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처리 노력으로 그 맥락적 효과를 달성할 때, 그 발화는 그 담화 참여자에게 있어서 最適의 適合성을 지닌다(optimally relevant)고 한다. 이런 논의를 거쳐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적합성의 원리를 주장하고, 인간 의사소통 행위를 제어하는 하나의 원리로서 이를 담화 해석에 적용한다.

適合性 原理(Principle of Relevance)

모든 推論的 通話行爲는 最適의 適合성을 保證한다.

(Sperber and Wilson 1986: 158)

이 원리를 그라이스의 이론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원리가 간단하다고 해서 그 원리의 기능을 축소시켜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에 인용한 적합성 원리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발화가 담화 참여자에게 최적의 적합성을 보증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모든 발화가 무조건 아무에게나 최적의 적합성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어떤 발화를 생산할 수가 있고, 또 그 청자는 화자의 그 발화가 그릇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청자의 주의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엉뚱하게 돌리는 발화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합성을 보증하는 해석을 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적합성 원리를 실제로 담화 해석에 적용, 분석함에 있어서 스퍼버와 윌슨은 適合性 原理

4) 보다 일반적으로 스퍼버와 윌슨은 이를 推論的 通話行爲(an act of inferential communication)라고 부른다

와의 一致性(consistency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을 논의의 중요한 도구로 채택한다. 한 발화가 해석상에서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퍼버와 윌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의 발화가 청자에게 최적의 적합성을 지닐 것으로 이성적 화자가 기대했다면, 즉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타당한 맥락효과를 청자에게 달성할 것으로 화자가 기대했다면 그의 발화는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고 하자(Wilson & Sperber 1986a: 76).

즉, 자신의 發話가 聽者에게 가능한 한 經濟的으로 妥當한 脈絡 效果를 達成하기를 理性的인 話者가 期待했다면 그의 발화는 해석상에서 적합성 원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적합성 원리를 영어의 담화 연결표현의 설명에 도입한 연구를 살펴 보고자 한다.

5. 담화의 추론적 연결표현 -- 영어의 'so'

블레이크모어(Blakemore) 1987은 적합성 원리를 談話 連結表現(discourse connectives)의 意味分析에 導入한 최초의 연구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영어 담화에 있어서 'so'나 'but'과 같은 推論的 連結表現들의 意味는, 그 연결표현을 포함하는 발화의 명제 내용에 그 연결표현이 의미적으로 기여한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발화의 명제내용이 거쳐야 하는 推論的 計算作用(inferential computations), 즉 適合性에의 言語的 制約 手段이라는 觀點에서 分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련의 논문들(Blakemore 1987, 1988a, 1988b, 1989, 1992, 1996)을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논의를 확대시켜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Blakemore(1988a)에서 다룬 영어의 'so'에 관한 논의만을 살펴 보고자 한다.

영어의 'therefore'와 'so'는 담화의 추론적 (또는 논리적, 연역적) 연결을 수행한다는 共通點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이는 간단히 확인될 수 있다.

- (9) a. Peter is a movie star. Therefore he is rich.
 b. Peter is a movie star. So he is rich.
 (10) Every movie star is rich.

화자는 (9a)와 (9b)에서 담화 연결사 'therefore'와 'so'를 사용함으로써, 피터가 영화배우라는 命題와 背景知識인 (10)의 명제 내용을 前提(premises)로, 피터가 부자라는 結論을 推論的으로 (또는 論理的, 演繹的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블레이크모어에 의하면 이들 두 담화 연결사의 機能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다음 예를 살펴 보면,

(11) a. There's \$5 in my wallet. So I didn't spend all the money then.

b. There's \$5 in my wallet. ??Therefore I didn't spend all the money then.

(Blakemore 1988: 188)

'therefore'와는 달리 'so'는 언제나 논리적인 正當化의 證據(proof of justification)와 연관지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나타난다. 다시 말하자면 (11b)의 'therefore'와는 달리, (11a)에서 'so'가 이끄는 '나는 그때 돈을 다 쓰지 않았다'는 명제는 담화의 첫번째 명제, 즉 '내 지갑에 5달러가 있다'는 명제의 脈絡的 含蘊(contextual implication)이라는 事實에 그 適合性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so'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레이크모어는 이들 두 담화 연결사의 용법에 있어서 이보다 더 뚜렷한 差異를 드러내는 예를 들고 있다. 가령 포장된 물품상자를 메리가 잔뜩 안고 집에 들어설 때 피터가 (12)와 같이 말할 수는 있지만 (13)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12) So, you've spent all your money.

(13) ??Therefore, you've spent all your money.

이들 예에서는 담화 연결사가 전달하는 명제에 先行해서 發話된 命題가 아예 없다. 만일 첫 번째 명제에 대한 論理的 推論의 結果를 나타내기 위해서만 'so'를 사용한다면, (12)의 경우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부분을 블레이크모어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명백히, 'so'는 방금 전에 발화된 내용을 통해서 (12)가 표현한 명

제가 입증되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다. ['so' 앞에] 아무런 말도 표현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명제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그 사실성(factuality)을 보증하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성을 보증하는 내용과 함께 나타나는 명제는 오직 발화된 명제들 뿐이다. 그런데 만일 (12)의 화자가 아무것도 입증하려 하지 않았다면, 왜 그는 ['so'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발화를 통해 표현된 명제가 하나의 논리적 결과라는 점을 나타냈겠는가? (Blakemore 1988: 189)

그렇다면 결국 이 'so'의 意味는 연역적, 논리적 추론과정이나 명제 내용에의 기여도와 같은 관점에서만 분석될 수는 없고, 어떤 다른 시각에서 설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블레이크모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인지적 정보처리, 즉 適合性 原理로 설명하고 있다.

화자가 어떤 脈絡의 含蓄⁵⁾ Q를 導出할 수 있는 情報 P를 지니고 있고, 청자도 그 P를 지니고 있어서 餘他の 脈絡의 前提들과 함께 處理하면 Q를 導出할 수 있다고 생각할 根據가 있다고 假定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만일 P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자신이 Q를 발화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식해 주기를 바랄 때, 화자는 이미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하다(highly accessible)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P를 直接 發話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피터는 (12)와 같이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問題는, 그 상황에서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한” 정보 P가 하나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메리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오는 것 이외에도, 오랜 시간을 걸어 다니느라 피곤해서 그녀가 다리를 절며 들어온다든가, 안고 나갔던 **장아치를** 걸려서 테리고 들어 온다든가, 또는 피터가 담배를 피워 물고 **있다는** 등 여타의 많은 명제가 이 상황에서 액세스 가능한 것일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메리는, 그녀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온다는 명제에 대한 맥락적 함축으로 (12)를 解釋하는데, 이는 'so'의 용법과 함께 適合性 原理로 說明된다.

5) 맥락(적) 함축(contextual implication)이란 일종의 합성 함축(synthetic implication)이다. 맥락 C에서 명제 형식 P의 맥락 함축은 C 또는 P만에 의해서 함축되는 명제가 아니라, C와 P의 교집합에 의해 함축되는 명제들이다. 이때 C에 들어 있는 구정보들은 합성함축에 전제(premise)로서 사용된다.

피터가 발화를 'so'로 시작한 것은, 이미 (11a)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so'가 이끄는 명제가 이미 청자에게 있어서 액세스 가능한 명제에 대한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런데 (12)가 표현하는 명제는 원리적으로는 메리가 다리를 절며 들어 온다든가, 강아지를 걸러 들어 온다든가, 피터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명제 등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지만, 이런 명제들과 (12)를 관련지어 정보처리하는 것은, 메리가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 온다는 명제와 (12)를 관련시켜 정보처리하는 것보다 들이는 노력이 더 크다. 적합성 원리는 화자가 발화를 생산할 때 청자가 가장 적은 정보처리의 노력으로 타당한 맥락적 효과를 얻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청자가 담화 해석시에 당연한 것으로 상정토록 하는 것이므로, 메리는 자신이 물품상자를 잔뜩 안고 들어온다는 명제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피터가 (12)를 발화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고 그 시각에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오직 그 시각에서만 (12)를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12)에 제시된 영어의 'so'는 기존의 논리학이나 의미론적 방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적합성 원리로만 설명이 가능한 담화 현상이라 하겠다. 이번에는 우리말 담화 연결표현인 '그러니까'가 이와 並行的인 境遇라는 논의를 진행시켜 보기로 한다.

6. '그러니까'와 적합성 원리

우리말 담화 연결표현 가운데 하나인 '그러니까'는 영어의 'so'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원리로 타당한 설명을 가할 수 있는 담화 연결표현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 (14) a. A: 그러니까 적합성 원리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로입니다.
 b. B: 그러니까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이지?
 c. A: 예. 그러니까, 노력과 효과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d. B: 그러니까 그 뭐냐,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뭐 그런 얘기야?

위의 담화는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두 사람이 교환한 발화다. 이들은 서두 부분에서 '그러니까'를 사용함으로써 각자의 발화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가 선택한 '그러니까'는 앞서 2 장에서 논의한 신현숙(1989)의 [거

리)라는 의미자질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에 선행하는 명제, 즉 명시적으로 드러난 선행하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후행 사건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 의미 자질 [거리]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따라서 '그러니까'와 같은 담화연결사는 명제내용에의 기여도와 같은 관점에서만 분석될 수는 없고 새로운 분석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러니까'의 자리에 完全히 代替될 수 있는 餘他的 우리말 談話 連結表現이 없다는 것이다. 간혹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위 예문들의 '그러니까' 자리에 '그래서'를 넣어 보면 그 결과로 어색한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實際 發話 狀況에서 위의 경우에 '그래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자가 어떤 脈絡的 含蓄 Q를 導出할 수 있는 情報 P를 지니고 있고, 청자도 그 P를 지니고 있어서, 餘他的 脈絡的 前提들과 함께 처리하면 Q를 導出할 수 있다고 생각할 根據가 있다면, 그런 狀況에서 만일 P의 맥락적 함축으로서 자신이 Q를 발화한다는 것을 청자가 인식해 주기를 바랄 때, 화자는 이미 청자에게 대단히 액세스 가능하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P를 직접 발화할 필요가 없다. 위 (14)의 담화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談話 共通 空間 속에서 서로가 정보 P를 共有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자신의 발화를 그 P의 맥락적 함축이라고 상대방이 인식해 줄 것을 서로 期待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담화 교환 초기의 상호 공유 정보⁶⁾ P는 (15)와 같을 때, 이들은 굳이 (15)를 발화할 필요 없이

6) 여기서 논의되는 상호 공유 지식은 루이스(Lewis 1969)와 슈퍼(Schiffer 1972)의 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발화를 살펴보자.

(1) 3시 30분에 화용론 세미나가 있어.

오후에 커피 한 잔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이 이 발화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의문은, 이 발화가 친구의 제안에 대한 수용이나 아니면 거절이나하는 것이다.

당신이 화용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친구가 정확히 알아맞히더라도 그는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당신이 화용론을 싫어하는 점을 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이유로서 화용론 세미나가 있다는 점을 말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블레이크모어(Blakemore 1992)가 지적하듯이, 당신이 화용론을 싫어하는 것을 당신의 친구가 안다는 점을 당신이 알려도, 당신의 친구는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화용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도록 일부러 당신의 친구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발화 해석의 맥락은 단순히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뿐만 아니

‘그러니까’라고만 발화함으로써 이제 발화하려는 내용이 (15)의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15)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에 의해서, (14b), (14c), (14d)는 각각 (15)를 상호 공유 정보로 한 채 ‘그러니까’만으로, (14b), (14c), (14d)가 각각 (16), (17), (18)의 맥락적 함축이라는 점을 通話하는 것이다.

(16)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당신은 ‘적합성 원리’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로 말했다.

(17)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내가 ‘적합성 원리’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로 말하니까 당신은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이냐고 물었다.

(18) 나와 당신은 ‘적합성 원리’에 관해서 담화를 교환하고 있는데, 당신은 ‘적합성 원리’가 하나의 경제성 원리나 마찬가지로 말했고 내가 그게 경제원칙이란 말이냐고 물으니까 당신은 노력과 효과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4)의 각 ‘그러니까’ 자리에 ‘그러니’가 올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으)니’가 주로 文語體에 나타나고, ‘-(으)니까’가 주로

라, 공유되었다는 점이 알려진 지식, 공유되었다는 점이 알려졌다는 점이 알려진 지식, 그리고 이와 같이 무한히 계속되는 총위의 지식까지도 포함한다는 견해다. 이렇게 무한한 총위에 걸쳐 상정되는 지식 유형을 루이스(Lewis 1969)는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 쉬퍼(Schiffer 1972)는 상호 공유 지식(mutual knowledge)이라고 부른다. 즉,

- ① A는 P를 안다
- ② B는 P를 안다
- ③ A는 ②를 안다
- ④ B는 ①를 안다
- ⑤ A는 ④를 안다
- ⑥ B는 ③를 안다
- ⑦ A는 ⑥를 안다
- ⑧ B는 ⑤를 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한히 계속된다.

口語體에 나타난다는 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가 올 수 없고 '그러니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特別한 理由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담화, 화용론상의 '그러니까'의 기능이 논의될 수 있다.

즉, 담화 연결표현 '그러니까'는, 담화상에서 그에 先行하는 모든 情報를 脈絡的 背景知識으로 놓고, 後續되는 發話를 그에 대한 脈絡的 含蓄(contextual implication)으로 나타내는 話用論的 機能을 담당하는 談話 連結表現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그러니까'는 선행정보가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할 경우 선행정보를 굳이 발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後續 發話도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한 것일 경우에 발화되지 않고 含蓄(또는 省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과 區別된다.⁷⁾ 다음 예문에서,

- (19) a. A: 이번 자동차 판매 건(件) 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사시켜야 된다.
 b. B: 그럼. 아마 이런 기회도 드물 걸.
 c. A: 무엇보다도 저쪽에서 우리 이익률을 잘 모르잖아.
 d. B: 그러니까.
 e. A: 아무튼 잘 해보자.

'그러니까' 말고는 (19d)에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연결표현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 경우 역시 '그러니'가 들어갈 수 없다. 결국 '그러니까'는 우리말에서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에 비해, 선행정보이건 후속정보이건 간에 그것이 談話空間 속에서 談話 參與者들의 共有認識 範圍에 들어가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단히 敏感한 特性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서성교(199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에 포함되는 '-까'가, 선행절의 정보를 인지공간의 前景(foreground)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⁸⁾.

7) 물론 이러한 현상은 비단 '그러니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담화상황을 판단할 때, 굳이 발화하지 않아도 청자에게 자신의 제보적 의도(informative intention)가 전달될 것이 확실한 내용이라면 명시적으로 발화되지 않을 것이다.

8)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서성교(1998: 193-198) 참조.

‘그러니까’와 같은 담화 연결표현은 그 분포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다음 예의 ‘보니까’의 경우도 어휘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예로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 (20) a.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많더구만.
b. ??보니 그 친구, 말이 많더구만.

‘보니까’의 앞에 아무런 선행 발화가 없어도 (20a)는 수용 가능하지만, (20b)는 어색한 발화로 간주된다. 이 역시 ‘그러니까’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담화 연결표현인 ‘so’와 우리말의 ‘그러니까’가 동일한 담화기능을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so’가 여타의 연결표현, 즉 ‘therefore’, ‘thus’, ‘hence’ 등과 구별되고, 그 구별되는 특질의 기준이 적합성 원리에 의해 설명될 수 있듯이, 우리말의 ‘그러니까’ 역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되며, 그 차이점이 적합성 원리로 잘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고 하겠다.⁹⁾

7. 맺는 말

본고의 논의를 통해서 담화 연결표현으로서의 ‘그러니까’는 담화, 화용론적 현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영어의 ‘so’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화용론적인 이론인 適合性 原理에 의해 ‘그러니까’가 전달하는 談話 連結現狀이 잘 說明된다는 점으로 立證되었다.

담화 연결표현 ‘그러니까’는, 담화상에서 그에 先行하는 모든 情報를 脈絡的 背景知識으로 놓고, 後續되는 發話를 그에 대한 脈絡的 含蓄(contextual implication)으로 나타내는 話用論的 機能을 담당하는 談話 連結表現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특히 ‘그러니까’는 선행정보가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할 경우 선행정보를 굳이 발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 마

9) 그렇다면 ‘그러니까’를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 등과 구별짓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과연 ‘-까’가 수행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그 기능을 ‘-까’만이 담당한다고 주장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적합성 원리로 대단히 잘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말 접속문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까’는 적합성 원리로만 설명되는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디로 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後續 發話도 화/청자 모두에게 액세스 가능한 것일 경우에 발화되지 않고 숨춤(또는 省略)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타의 담화 연결표현과 區別된다.

참 고 문 헌

- 남기심. 1978 가. “-아서'의 화용론”, 말 3, 연세대.
 _____. 1978 나. “국어 연결형 어미의 화용론적 기능 — 나열형 ‘-고’를 중심으로”, 연세논총 15, 연세대.
- 남기심, 루코프. 1983. “논리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국어의 통사 의미론, 탑출판사.
- 서성교. 1998. “한국어 접속어미 ‘-니까’의 인지·화용론적 연구 시론”, 언어학 6권 2호, 대한언어학회.
- 서태룡. 1988. 국어 활용어미의 형태와 의미, 탑출판사.
 _____. 1990. “ ‘-으니까’와 ‘-다가’의 (-가)”, 강신항교수 회갑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 신현숙. 1989. “담화대용표지의 의미 연구-(그래서/그러니까/그러나/그렇지만)을 대상으로-”, 국어학, 19.
- 윤평현. 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 이정민. 1980. “한국어 조건·원인구문의 통사론과 의미론”, 제1회 한국학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전혜영. 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대.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Blackwell.
 _____. 1988a. ‘So’ as a constraint on relevance. In R. Kempson (ed.) *Mental Representation*. Cambridge: CUP.
 _____. 1988b. The organization of discourse. In F. Newmeyer (ed.)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vol. 4.
 _____. 1989. A Relevance Theoretic Analysis of ‘BUT’. *Linguistics & Philosophy*.
 _____. 1992. *Understanding Utterances*. Blackwell: Oxford.
 _____. 1996. Are apposition markers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Linguistics* 32.
- Green, G. (1989) *Pragmatics and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Morgan (eds.) *Speech*

- _____ *Acts (Syntax and Semantics, vol. 3).*
- _____. 1981. Presupposition and conversational implicature. In Cole, P. (ed.) *Radical Pragma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S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rber, D. and Wilson, D.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 Unger, C. (1996) The scope of discourse connectives: implications for discourse organization. *Journal of Linguistics* 32.
- Wilson, D. and Sperber, D. 1986a. Pragmatics and modularity. *CLS* 22, part 2.
- _____. 1986b. Inference and implicature. In C. Travis(ed.) *Meaning and Interpretation*. Oxford: Blackwell.
- _____. 1988. Representation and relevance. In R. Kempson(ed.) *Mental Representation*. Cambridge: CUP
- _____. 1993. Linguistic form and relevance. *Lingua* 90.

545-800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혜리 199-4
한려대학교 외국어정보관광학과
E-mail: sksuh@hlu.hanlyo.ac.kr
Tel: +82-667-760-1116
Fax: +82-667-761-6709